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7반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7반

가을의 변화
추석에 재밌었던 일
추석 음식은 맛있어
왜 왔지?
즐거운 추석
행복한 추석
가을 소풍
재미있는 마시안 갯벌 체험
금 같은 학교
여름이 된 추석
조금 슬픈 추석
냄새나는 은행
가을 계절
가을 가족 여행
추석 음식
바다
추석에 있었던 일
친한 친구
스케이트보드
추석
추석
재미있었던 낚시, 밤 줍기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즐거운 수영장
즐거운 한가위
추석에 있었던 일
즐거운 추석

- 가주원
- 고도영
- 고현민
- 권시윤
- 김대한
- 김민지
- 김예린
- 김주은
- 문태경
- 박초아
- 염현지
- 유다운
- 윤현수
- 이성빈
- 이솔하
- 이승아
- 인우진
- 임수빈
- 임태우
- 임혜윤
- 전민성
- 전지민
- 전하울
- 정민준
- 지정빈
- 차한결
- 최은서
- 허서원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1) 번

이름

가주은

가을의 변화

아주아주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다.

낙엽 밟으며, 놀고, 지독한 은행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부고, 맛있는 과일과 곡
식도 있고, 알은 잠바도 입는다.

가을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이다. 과일과 곡식이 아주 많고 계절
절종에 제일 시원하고 우리나라의 두번
째 명절 추석도 있고, 우리나라 국경일인
개천절도 있다.

아름답고 가을이 계속있었으면 좋
겠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1)반 (2)번

이름

고도영

추석에 재밌었던 일

엄마와 아빠랑 할머니랑 다같이 전을 부쳤다.
그리고 사촌동생 누나도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재밌었다.
그리고 전은 다 부치고 먹었을 때 엄청 맛있었다. 그리고 전은
다 먹은후 사촌 동생이랑 같이 게임을 했다. 재밌었고 신
났대. 그리고 오후 다섯 시에 사촌 동생과 같이 편의점에 갔다.
사촌 동생은 요카정 카이스크림을 샀고, 나는 라면을 샀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서 먹었다. 맛있었다. 라면을 다 먹은후
다시 사촌 동생이랑 브록 스타스를 했다. 그리고 게임은 카다조
해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한시간만 잤다. 그리고와 아빠는
먼저 집에 갔고, 나는 할머니 집에서 사근간 것이다. 잠을
다 잔후 일어나서 편의점을 갔다. 이번에 지렁이 젤리 2개
포라포 카이스크림 2개 샀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서 지렁이
젤리를 먹어볼았다. 맛있었다. 그리고 놀다 보니 잠시간이되
어 갔다. 행복했다. 재밌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11) 반 (3) 번

이름

김현민

주식 음식은 맛있어

주식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

게임을 하며 먹을 때에도
주식 음식은 맛있어.

한과도 초편도
모두 다 맛있어.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4) 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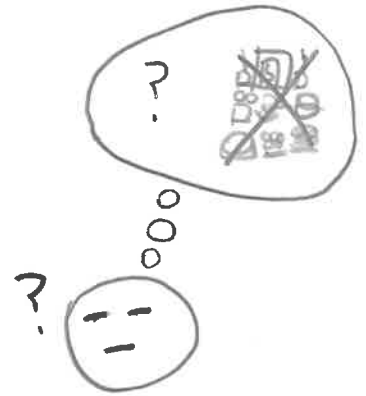
권시윤

왜 왔지?



오늘은 추석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왜 왔지?

추석은 추수하느라
크걸 기념한다
근데 왜 왔지?



추석은 차례를 지낸다
근데 다음에 지낸다고 한다
진짜 왜 왔지?

그냥, 왔나보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5) 번

이름 김대한

즐거운 족석

족석은 아주 즐겁다 왜냐하면 소고기를 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돈을 받아서 아주 좋다. 그리고 족석이 빨리 다시 오면 좋겠다. 그리고 삼촌(아빠 친구) 집을 가는데 밥도 주고 맛있는 고기를 먹으니 아주 좋다. 그리고 열심히 게임을 했다. 나는 족석이 아주 좋다. 족석 덕분에 학교를 많이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족석이 좋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6) 번

이름 김민지

행복한 추석



친척들 오순도순 모여
맛난 반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으로 약과와 송편도
맛나게 먹는 추석

저녁에는
진수성찬 먹는 추석.

우리의 소중한 추석,
우리의 행복한 추석.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17) 반 (17) 번

이름

김예린

가을 소풍 ☆

쌀쌀한 가을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은사

공원에 간다.

돛자리를 펴 음식을 올려두고

가족과 식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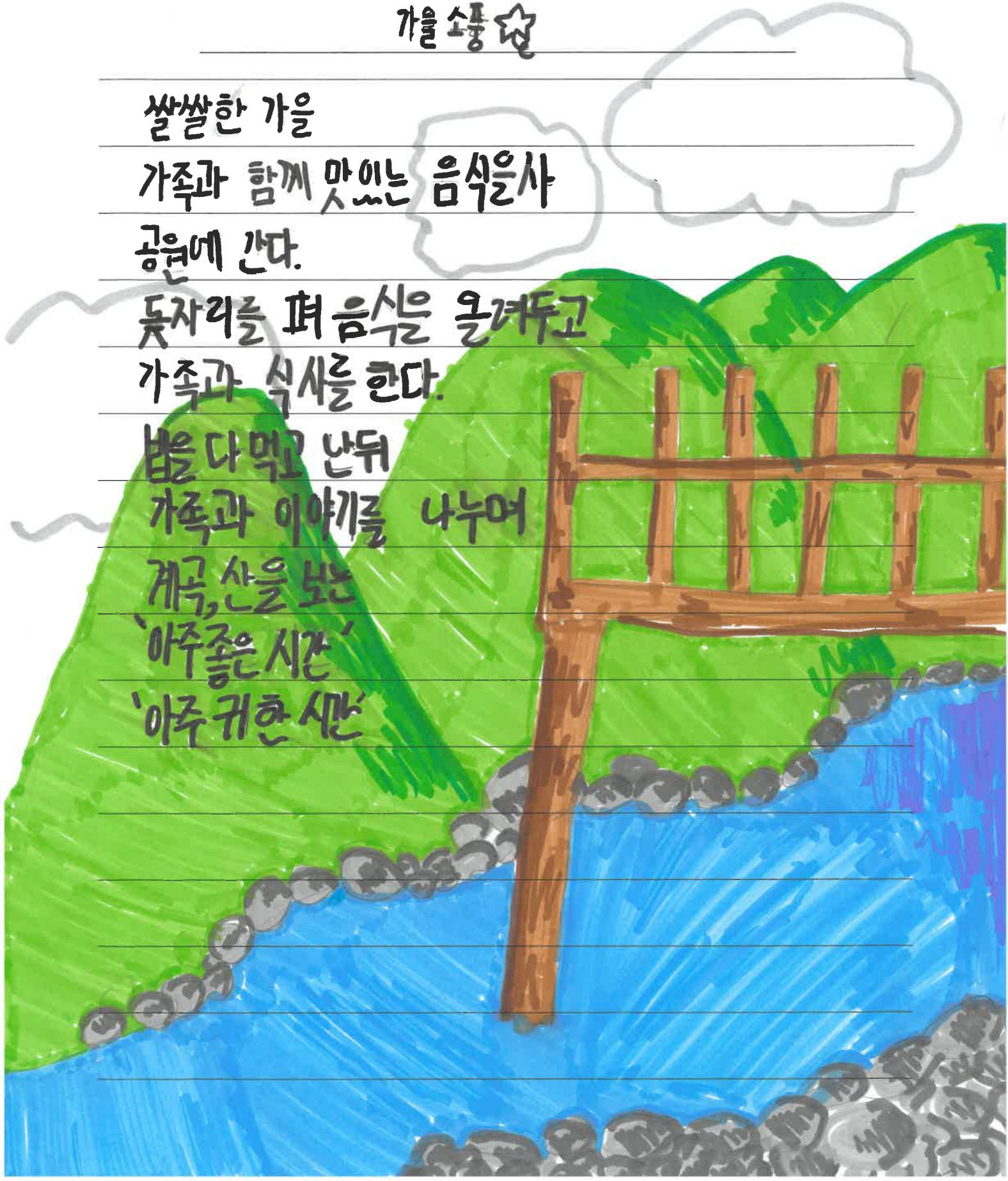
밥을 다 먹고 난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계곡, 산을 보는

'아주 좋은 시간'

'아주 귀한 시간'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8) 번

이름

김주원

재미있는 마시안 갯벌 체험

마시안에서 가족과 갯벌 체험을 하였다 시각은 11시쯤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갯벌로 들어갔다. 들어가니 게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생물이 많이 많다. 가서 흙을 파다. 갯지렁이가 있었다. 싱그럽다 나 후에 조개를 많이 찾았다. 아쉽게도 작은 것은 잡으면 안되서 아쉬웠다. 큰 조개들을 많이 잡고 작은 조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또 작은 조개들을 보았다 그 옆에 아저씨가 계셨는데 우리 것보다 큰 조개를 3개나 더 잡았다. 대형에서 작은 조개를 넣을 통을 샀다 그 개 샀다. 딱 들어갔다. 나중에 집에서 살펴보니 왼쪽 말고 오른쪽에 큰 조개가 있었다고 되어있었다 그리고 신기했던 생물이 밖에 부분이 딱딱하고 안에 부분은 말랑거렸는데 이름이 문지궁궁했다. 딱딱한 부분을 땅파는 것으로 때리면 딱딱하게 부서지면서 죽었다 마라고 난 뒤, 생선집에 가서 생선구이와 밥과 누룽지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집에 와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밖에 부분이 딱딱하고 안에는 말랑한 애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9) 번

이름

문태경

금 같은 학교

학교는 정말 귀한 금과 같다.

친구도 있고, 수업도 재미있는 금이다.

학교는 정말 감동적인 금이다.

같이 위로하고, 같이 나가는 감동적인 금 같다

금 같다



나는 학교라는 금이 좋다.

학교는 정말 귀하다.



금 같은 학교 함께 다니요. ^^

학교는 정말 귀한 금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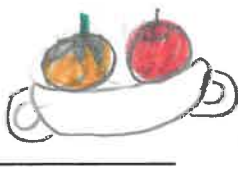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17)반 (10)번


이름

초아

 여름이 된 추석 



추석 연휴는 바쁘다 바빠!


 마트에는 사람이 북적북적 
도로에는 차가 북적북적 

 햇빛은 쨍쨍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갈길 가네 

 우리 모두 

땀흘리는 달팽이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II) 번

이름

엄현지

조금 슬픈 추석

이번 추석 때 큰집에 갔다. 큰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먹는거라 음식에 파리들이 붙어서 먹기 불편하였다. 밥을 조금만 먹고 2층에 올라가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촌동생이 오늘도 역시 나에게 함께 놀자고 하였다. 근데 오빠들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여 사촌동생을 함께 놀아주었다. 그래서 혼자 놀아주는 것보다 놀아주는 게 쉽고, 나도 오랜만에 큰집에서 노니 재미있었다.

그리고 저기에 꽃님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많이 약해 보이고, 아파보였다.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보니 강아지가 벌써 16살이라 다음 추석에는 못 볼 것 같다고 하여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사촌동생과도 놀고, 강아지와도 놀았다.

이제 갈까 시간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눈에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 눈이 붓고 빨개졌다. 너무 아팠지만 큰집에 아무도 안약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약도 먹고, 안약도 넣었다.

재미있긴 했지만, 안약을 아무도 주지 않아서, 좀 섭섭하였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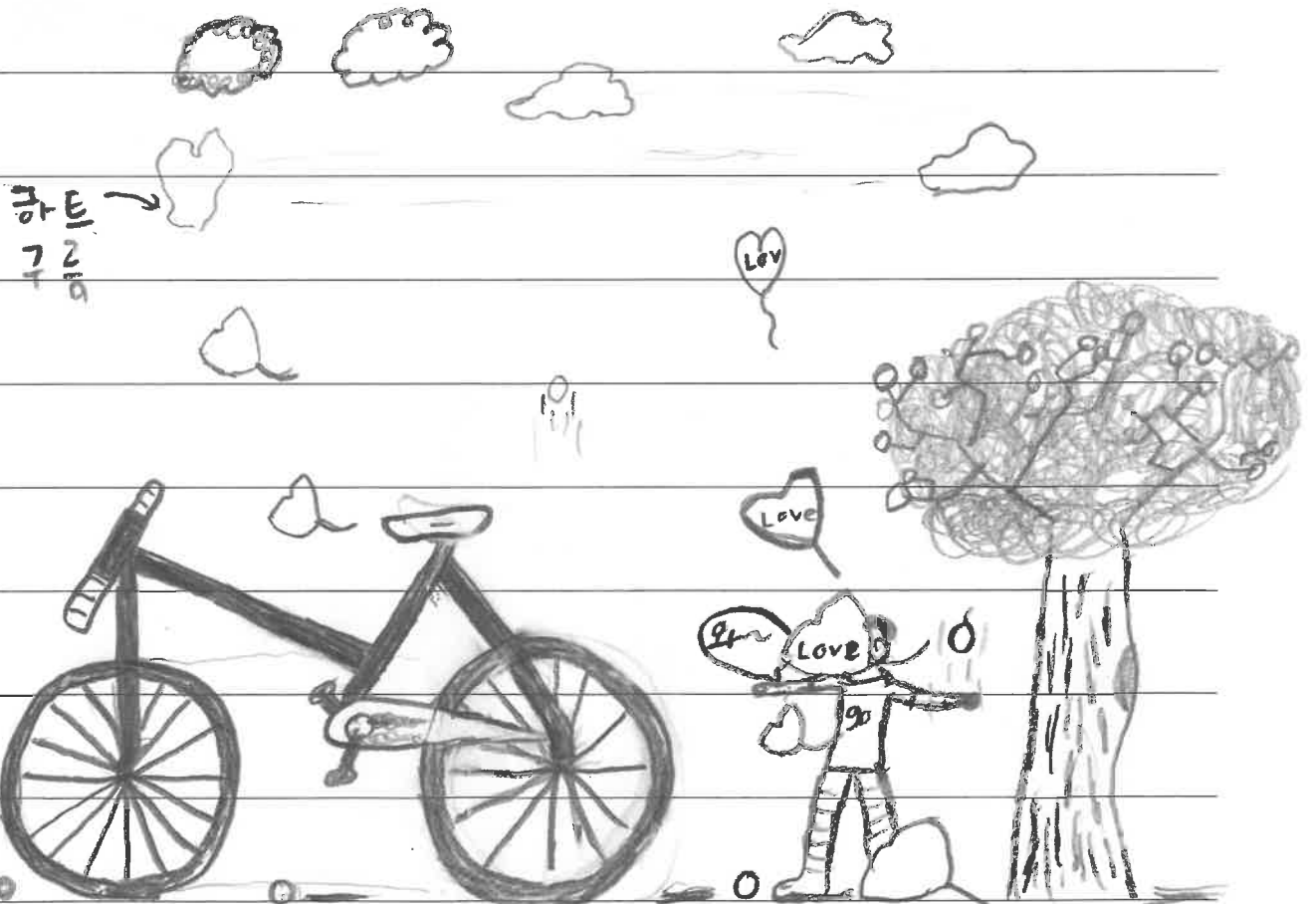
4학년 (7) 반 (12) 번

이름

유다운

냄새나는 은행

추석에 친구들과 여러명과 자전거를 타고 놀았다.
재미있었지만 단점이 있었다. 무엇이나면 은행
때문에 자전거에서 냄새가 났다. 그래서 은행
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은행이 없는 곳은 없
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놀았다. 추석에 친구들과 은
행을 받고 가니 냄새는 나도 기분은 좋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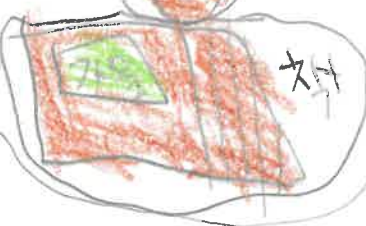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13) 번

이름

원형사

가을계절



가을이면 떠오르는 것은
단풍잎, 단풍잎, 단풍잎, 단풍잎, 다랑쥬, 고등주머니,
채입니다. 저는 가을이 오는 계절을 좋아합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반 ()번

이름

이성빈

제목: 가을 가족 여행

우리가 좋은 가을도 리조트도 좋아한다.

하지만 입장시간은 오후 3시라 아직 못 들어가

사랑이 들러 보았다. 들러보고 나니 비가 온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타다. 그리고 다음 목요일

동굴로 갔다. 들어가니 너무 추웠다.

하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저녁 때 밥 배배 먹고 야식을 치킨

먹고 잤다. 다음날 우리가 좋은 울렁다리

울렁다리가 아닌 산에 갔다. 다 내려올 때

친구가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친구가 좋아해서 저녁을 먹고

야식을 사서 먹고 잤다.

오늘이 집에 가는 날 너무 아쉬우고 슬프다.

하지만 재미있는 가을 여행이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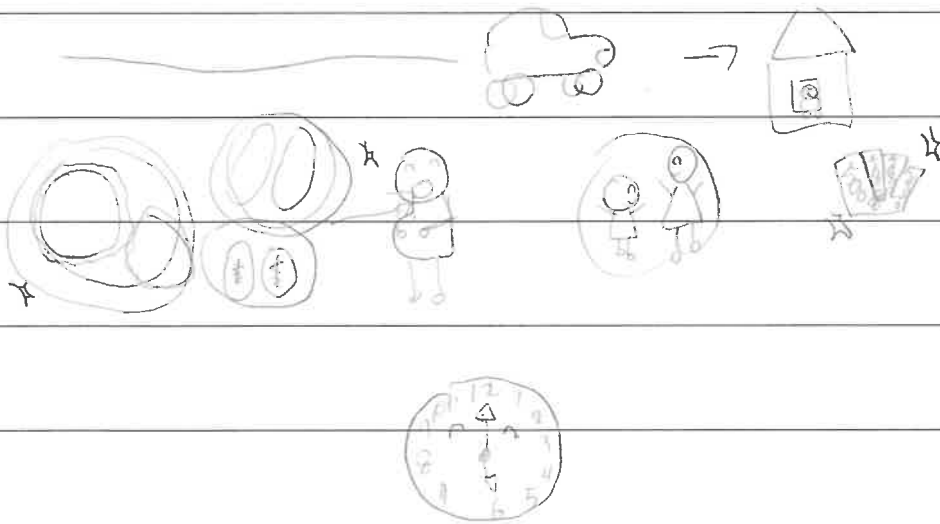
4학년 (11)반 (15)번

이름

이소하

주석 음식

주석은 너무 기쁜 날이다. 왜냐하면 학교, 학원을 쉬고 주석에
 이모, 할머니, 시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또 선물과 만나서 놀러 내 용돈을 받는다.
 그다음엔 어디가서 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16) 번

이름

이승아

• 바다 • 9

바다에 갔다.

바람이 많이 분다. ☺☺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

뷰가 너무 이쁘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에 간다.

집에 갈때도 시원했다 ☺☺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반 ()번

이름

이은지

추석에 이었던 일

추석에 내일 생들과 차를 타고 고향 집에 갔다.

밤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난 형아 방이 있던

컴퓨터가 일했었다. 힘 () 하나 너무 재밌었다.

어른들이 추석이라고 음료를 주셨다.

동생들과 방에서 지나가 놀다가 모르고 컵을

부셨다. 속상했지만 참 친구 나가 도와주어 잘

해결이 되었다. 오렌지 () 생들과 만나서

신나게 놀고 옹도 받아 추석에 기억에 남는 기억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반 (8)번

이름

임수빈

친한 친구!!

9월 22일 일요일의 게임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몇분이 지나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나랑 오늘 같이 놀래?? 귀찮았다! 폰데 저 번수에 많이 캔슬 해서

그냥 놀는다고 말을 해 버렸다 그래서 귀찮은몸 이끌고 준비를 하러 일어났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준비물 챙기고... 돈갈아 입고 준비를 다 했다 그래서

나갈려다 혹시나 해서 카톡을 보냈다(혹시 준비 완료하면 얘기 해줘서)

근대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있다 문자 보냈지... 하고

소파에 누워 폰을 보고 있었다 근대 갑자기 전화가 왔다 ^(민아) 너 어디 있어??

(수빈) 내가 카톡 보냈는데 ^(민아) 아 민아 언니 배터리가 없어서... ^(수빈) 지금 나갈게 ~ ^(민아) 00

그래서 나는 민아한테 말았다 (살살) 그리고 놀다 푹푹 해서 CU로 갔다

가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샴방극을 했다 꿀 판렸다 그리고 라면은

살려고 계산대에 갔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 했다 그리고 라면은

맛으리 라면 먹는대로 갔다 근대 또 샴방극을 했다 너무 꿀 판렸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졌다, 너무 재미있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1) 번

이름

임태우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다.

스케이트보드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다.

기분이 좋으면 타는 재미가 배가 된다.

서너번 타면 정말 재미있고 신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스케이트보드를 샀다.

기분이 좋으면 타는 재미가 배가 된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신난다.

이게 정말 재미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20)번

이름

임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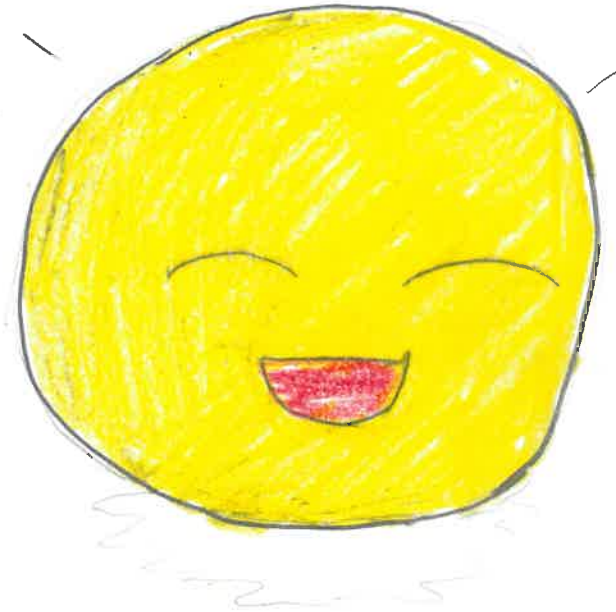
추석

둥근 달 뜬 추석
우리 반겨주네.

온 가족 한자리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으면
환하게 웃는 둥근 달.

조상들께 차례 드리고
둥근 달에게 소원 비니
마을 사람들 소원 하나하나 모여
둥근 달 마음속에 전달되었다.

감동받은 둥근 달
마을 환하게 비추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2) 번

이름

전민성

추석

이번 추석 때 밤만주를 만들러 갔다. 재료가
깨, 앙금, 계란노른자, 연유등등 있었다. 재밌었다.

그 밤만주를 먹고 형이랑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했다.
그리고 줄넘기도 하고 싶었지만 못가져갔다.

공도 가져가고 싶었지만 못가져갔다 너무 아쉬웠다.

할머니네 집에서 미니사과를 따왔다 그사과로 형이랑
피구를 했다. 내가 던졌더니 미니사과가 깨졌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집에왔다가 다시

고모네로 갔다. 모두의 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을 했는데

첫 번째 판은 내게이고 두 번째 판은 누나가 이겼다.

그리고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도 봤다.

영화가 끝난 다음 형이랑 브롤스타즈를 또 했다.

끝나고 갈비를 먹고 또 게임을 했다 그 다음에

저녁으로 라면을 먹었다. 자고 일어나서 좀

놀다가 정으로 갔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반 (22)번

이름

전지민

재미있었던 낚시, 밤 줄기

추석연휴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망둥어랑 복어를 잡으러 석모도서해안에 갔다.

거기서 아침 9시 부터 낚시를 했다. 나도 망둥어를 잡으려고 낚시를

했는데 망둥어 1마리를 잡았다. 할머니는 복어 4마리, 망둥어 2마리를 잡았고,

할아버지는 망둥어 6마리, 복어 4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점심에 잡은 물고기를

끓여 먹고, 고기도 먹었다.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저녁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바닷물이 다 빠져서 물고기를 한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추석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밤 주우러 밤 산에 갔다.

밤을 많이 주워서 쉬고 있는데 밤 주우러 오신 밤 산 주인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아버지 친구 분들도 만났다. 그리고 다시 밤을 줌고 와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3시에 집에 갔다. 밤을 주울 때 너무 힘들었다.

집에 와서 밤에 물을 뿌리고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정리하고 조금은 팔고

나머지는 맛있게 먹고 할아버지한테 밤을 주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17) 반 (23) 번

이름

권하윤

할머니 댁에서

휴식 때 할머니 댁에 갔다. 가서 가족들이랑 놀았다.
그때 내가 너무 열심히 놀았는지 다음날 코로나처럼
아픈 감기에 걸렸다. 그리고 낮에 너무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다. 못 놀아서 슬픈 나는 내 마음을 달래 줄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면서 놀았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강겨라랑을 하였다. 강겨
라랑이 끝난 후 피곤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었다.
내가 잘 때 엄마랑 아버지가 나를 움직였는지 허리가
아팠다. 그리고 내가 너무 놀고 싶었는지 본능적으로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놀았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고 좋은
꿈도 꿴다. 그런데, 그건 좋은 꿈을 꾸게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학교를 가야 했다. 그래도 책
을 알차게 보아서 즐거웠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가)반 24번

이름

정미주

할머니. 대에 다녀와라.

우리 가족은 할머니 집으로 주말마다 4시간 만에

할머니 대에 도착해라. 할머니께서는 일을 가셔서

안계 쓰고 고보만 하셨다. 할머니 대에 도착하고 10

분 정도 있다가 식당에 계시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다른 할머니께도 인사할 준비를 하고 돌아왔다.

방이 되자 형아랑 나쁜 먼저 밥을 먹고 이제 식구

들이 모여라. 어른들끼리 밥을 다 먹고 아이스크림을

다가 같이 먹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쯤 주말마다 저녁 9시 넘 어집에

도착해라. 밤바퀴 바퀴를 타고 가라.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25) 번

이름

지정빈

즐거웠던 수영장

첫 석 연휴 때 우리 가족은 이천으로 놀러갔다.
고모 차를 타고 테크먼트에이라는 수영장을 갔다.
도착해서 첨빙첨빙 수영 했다 미끄럼틀을 타
다가 미끄럼틀에 박아서 날개뼈가 아팠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동용이라 먼저 탄
것보다 재미가 없었다. 그래도 수영장
에서 수영을 한 것은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26) 번

이름

차하경

즐거운 한가위

나는 추석 연휴부터 배를 타고 친가에 갔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할아버지가 키우신 포도도 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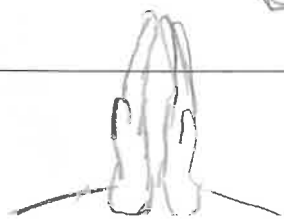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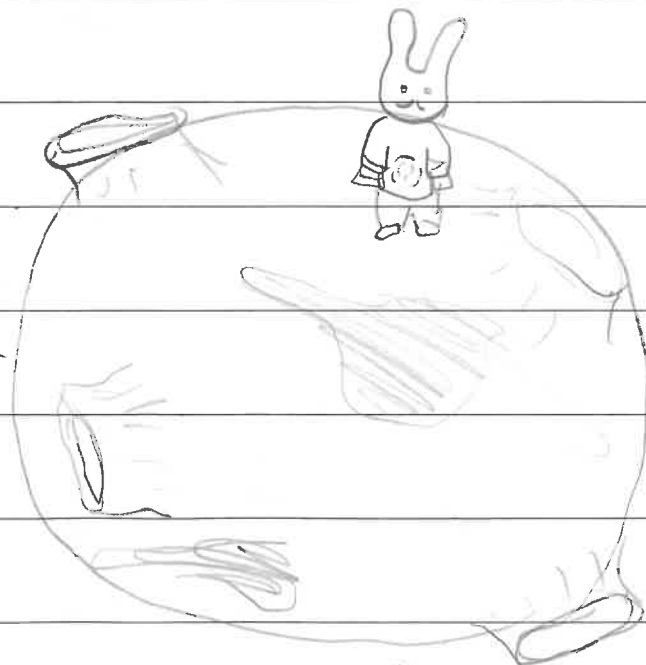
꼭꼭 씹어 주신 새우도 맛있게 먹었다. 용돈도

받아, 장난감을 사서 가지고 놀았다. 저녁에는 밖에서

엄마와 보름달에 소원도 빌었다.

가족들과 함께하여 행복했고 올해는 꼭 달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란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 반 (27) 번

이름

은서

추석에 이어던 일

친척들과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쫄득쫄득한 송편도
만들어 먹고



친척들과 같이
놀이도 해다.



추석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참 아쉽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17)반 (28)번

이름

이서원

즐거운 추석

추석에 할아버지 펜션에 놀러갔다.

펜션에 수영장이 있어 우리형, 4촌형과 재미있게 놀았다. 고모부, 삼촌 등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게임을 하였다.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한뒤 씻고 양치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수영을 또

하였다. 할아버지펜션 근처공원에가서 형과 배드민턴

도 하고 놀래깝기도했다. 아빠, 삼촌, 할아버지도 근처

바다에가서 낚시를 했는데 날씨가 안좋아 아쉽게

못잡았다. 펜션에서 맛있는저녁을 먹고 집에돌아왔다.

그리고 꿀맛을 봤다.

